

중국 주요지역의 ICT 창업환경 분석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오종혁 전문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김홍원 전문연구원



중국 주요지역의 ICT 창업환경 분석

요약

〈중국 ICT 창업 및 투자 현황〉

- ▶ 중국정부는 요소비용 우위를 기반으로 한 성장모델에서 과학기술 혁신형 발전모델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알리바바·텐센트·바이두·샤오미 등이 성공신화를 이어나가면서 20~30대를 중심으로 ICT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중국 ICT 기업들도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하면서 창업문화가 선순환
- ▶ 인프라 개선 및 정책적 지원 확대로 2014년에만 1,239만 개의 스타트업(Startup)이 탄생하는 등 창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통신 및 부가서비스를 중심으로 ICT 창업투자가 약 14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
- 2014년 중국 벤처캐피털(VC) 투자의 약 70%가 ICT 분야에 집중되고, 창업기업의 자본조달 활성화를 위해 개설된 신삼판(新三板)을 포함한 주식시장에 상장 및 등록하는 기업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

〈지역별 ICT 창업환경 및 특징〉

- ▶ 베이징의 중관춘 지역은 우수인력과 정책지원 및 자금이 몰리면서 중국 전체 창업투자의 1/3이 집중
- 중관춘에는 우수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의 고급인력과 해외에서 귀국한 우수인력이 풍부하고, 정부에서도 창업과 관련해 기금조성,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거리(innoway) 조성,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인큐베이팅·투자·미디어 등 20여 개의 창업지원 서비스 플랫폼 등을 구축
- ▶ 선전은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가장 주목하는 지역으로, 개방형 제조인프라 및 네트워크 기반을 쉽게 활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이 강점임.
- 스마트기기 제조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부품수급과 소규모제품 생산이 수월하여 최단기간 내 제품제작 테스트 및 완성이 가능하고, 하드웨어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드스튜디오, 핵스(HAX), PCH International 등이 소재하여 비용도 한국의 절반 수준이며, 시정부에서 기술창업기금·네트워크 및 공간 조성 등에 힘씀
- ▶ 상하이에는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해 게임과 같이 수익모델이 확실한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이 일어나고 있으나, 향후에는 혁신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을 유도할 방침임.
- 장장(长江)첨단기술단지 상하이에서 기술창업이 가장 활발한 곳이며, 한국 창업진흥원과 협력 중인 Innospace, 텐센트 창업센터 등도 주요 창업단지로 꼽힘.
- 2015년 5월 발표한 과학혁신도시 발전계획에서 혁신 창업을 위해 세계개혁, 금융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하고, 인력 유치를 위해 호적(户口) 취득기준 등을 완화할 예정임.

〈평가 및 시사점〉

- ▶ 중국에서 사상 최대의 창업 붐이 조성된 가운데 중국 ICT 기업의 성공사례를 이어가려는 창업 열기가 향후 5~6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의 스타트업이 중국 창업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중국 ICT 분야 스타트업에 대해 자본이 집중되고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의 진출이 유망하나, 한국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지역마다 통신환경과 사용자 습관이 달라 시장조사 선행이 긴요
- 한편 한국은 정부 주도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로 창업 초기단계(1~3년)에 지원프로그램을 집중하고 있어 상품화 이후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창업투자 선순환을 위하여 현재 IPO 중심의 자본회수를 위한 시장구조를 M&A, 장외시장 등을 통하여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



중국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15-02

차 례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중국 ICT 창업 및 투자 현황
 - 가. 창업 현황
 - 나. 투자 현황
3. 지역별 ICT 창업환경 및 특징
 - 가. 베이징
 - 나. 선전
 - 다. 상하이
4. 평가 및 시사점
 - 가. 평가 및 전망
 - 나. 시사점

부 록

참고문헌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중국정부는 요소비용 우위를 기반으로 한 성장모델에서 과학기술 혁신형 발전모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중국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을 촉진하고 있음.

- 2012년 공산당대표 18차 회의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으로 '혁신 구동 발전전략(创新驱动发展战略)'을 제시하였으며,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로의 진입을 목표로 설정함.

- '혁신'과 '창업'은 뉴노멀 시대를 맞이한 중국이 향후 성장동력으로 삼은 중요한 키워드로, 2015년 3월 양회(两会)¹⁾ 폐막식에서 리커창 총리가 '대중의 창업, 만민의 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을 강조하는 등 창업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

○ 2015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창업지원 강화가 제시되고, 처음으로 기술 기반 창업자를 의미하는 '창커(创客)'를 언급함.

○ 지방정부에서도 2015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금 및 창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

- 특히 2014년 749만 명에 달하는 중국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창업 장려책을 실시함.

○ 중국정부는 대학생 예비창업자에게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교내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이용 시 임대료를 면제하는 한편, 2013년 약 17만 명 수준의 대학생 창업자 수를 향후 4년 내에 80만 명 수준으로 늘릴 예정임.²⁾

■ ICT 분야의 창업 붐(创业潮)이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알리바바·텐센트·바이두·샤오미 등 중국의 ICT 기업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2008년부터 중국 모바일 인터넷 분야가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였으며, 거대한 자국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알리바바샤오미 등의 성공사례가 나타남.³⁾

-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는 2014년 9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구글, 페이스북에 이어 세계 3위(시가총액 기준) 인터넷기업이 되었으며, 샤오미는 창업 5년 만에 삼성, 애플을 위협하는 스마트폰 생산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ICT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성공신화가 이어지면서, 20~30대를 중심으로 창업 붐이 확산

- 특히 중국정부도 제조업 부가가치의 두 배 이상을 창출하고, 매출당 고용창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분야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음.⁴⁾

- 또한 대기업으로 급성장한 ICT 기업들이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유망 스타트업에 적극 재투자하면서 선순환적인 창업 문화가 생겨나고 있음.

○ ICT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기존 ICT 기업이 모든 분야를 포괄하기 어렵고, 스타트업도

1) 양회(两会)는 인민대표회의와 정치협상회의를 의미하며, 매년 초에 개최되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임.

2) 2013년 말 기준 대학생(723만 명) 창업자 비율은 2.3%임. 『新华网』(2014. 6. 10), 「2014中国大学生就业报告发布」; 『中国新闻网』(2014. 5. 30), 「中国官方计划4年内引领80万大学生创业」.

3) 『财经网』(2014. 10. 20), 「程建国:移动互联网给年轻人带来新一轮创业机会」.

4) 소프트웨어 산업의 부가가치율(일정기간 중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총 투입액으로 나눈 비율)은 55.9%로, 제조업의 부가가치율 22.2%에 비해 2.5배 높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산업과 주요 경제지표」(<http://spri.kr/post/4533>, 검색일: 2015. 6. 26).

플랫폼 역할을 하는 ICT 기업을 배제하고 성공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선제적이고 빠르게 이뤄지는 추세임.

- 알리바바의 자회사 아리윈(阿里雲)은 Zhenfund, IDG 등 30여 개 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창커(创客) +'계획⁵⁾을 발표하고, 100억 위안 규모의 창업자금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텐센트·레노버 등도 창업센터 개소,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자금과 인력이 풍부하고 창업이 집중되고 있는 베이징·선전·상하이의 ICT 창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지원정책을 파악함으로써, 중국의 ICT 창업 현황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베이징·선전·상하이는 칭화대학 치디혁신연구원(清华大学启迪创新研究院)에서 발표한 중국 혁신창업도시 랭킹에서 1~3위를 차지함.
- 칭화대 치디혁신연구원은 GRDP 1,200억 위안 이상의 154개 도시를 대상으로 정책지원, 산업발전, 연구개발, 인재, 금융 등 8개 분야를 평가하여 순위를 매김.

표 1. 중국 혁신창업도시 순위

순위	도시	점수	전년대비 변화	지역
1	베이징(北京)	100.0	-	동부
2	상하이(上海)	90.7	-	동부
3	선전(深圳)	77.3	-	동부
4	광저우(广州)	66.6	-	동부
5	톈진(天津)	64.1	2단계 상승	동부
6	쑤저우(苏州)	60.1	1단계 하락	동부
7	항저우(杭州)	60.0	1단계 하락	동부
8	우한(武汉)	59.2	3단계 상승	중부
9	청두(成都)	57.2	4단계 상승	서부
10	충칭(重庆)	56.9	-	서부

자료: 江川(2014), 「影响中国城市创新创业环境的N大因素」, 『中尖村』, p. 78.(9月)을 바탕으로 정리.

- 그러나 4월 현지조사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살펴본 결과 ICT 분야의 경우 베이징과 선전에 비해 상하이는 상대적으로 창업 열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본고에서는 베이징·선전·상하이를 중심으로 주요 창업단지 현황 및 특징에 더하여 창업투자, 창업지원 서비스를 살펴 보고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5) 新浪科技(2015. 3. 30), 「阿里云发布“创客+”计划」.

2. 중국 ICT 창업 및 투자 현황

가. 창업 현황

- 중국은 2012년을 전후하여 생계형 창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기회형 창업이 증가하고 있음.⁶⁾
 - 글로벌기업가정신(GEM)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초기 창업활동(TEA: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중 단순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2012년 37%에서 2014년 33.2%로 3.8%p 감소하였고, 기회형 창업은 2014년 65.7%로 증가하였음.⁷⁾
 -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생계형보다 기회형 창업이 주를 이루며, 기회형 창업이 생계형 창업보다 부가가치 창출력이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창업 붐이 일면서 창업공간과 같은 제반 인프라가 빠르게 개선되고, 정부도 지원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점차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중국은 2014년에만 1,293만 개의 새로운 스타트업 혹은 1인 기업이 탄생하였고, 2015년 1~4월까지 매일 1만 개의 기업이 탄생하는 등 새로운 창업 붐이 확산됨.⁸⁾
 - 혁신창업에 각종 자금이 몰리고 개방형 창업공간이 생기는 등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고, 정부정책도 큰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창업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창업의지가 고조되고 있음.
 - 국무원은 2014년 2월 「등록자본등기제도 개혁안(注册资本登记制度改革方案)」을 통해 최소 창업 자본금 요건을 철폐하였고, 2015년 1월 총 400억 위안(약 7조 원) 규모의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촉진기금(国家新兴产业创业投资引导基金)' 조성방안을 발표하여 차세대 ICT, 환경, 바이오 등 신흥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을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임.⁹⁾
 - 아울러 2015년 3월 대중 창업공간(众创空间) 확대를 포함한 8가지 조항의 대중 혁신창업 장려정책을 발표하였음.¹⁰⁾
- 중국의 혁신창업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창업 인큐베이팅(科技企业孵化器)센터는 중국 전역에서 1,500여 개가 운영 중(2013년 기준)이며, 입주기업과 창업자 수는 각각 7만 8,000개, 158만 3,000명에 달함(표 2 참고).
 - 1990년 무렵 중국은 과학기술의 산업화를 위하여 전국의 하이테크 산업단지에 과학기술창업 인큐베이팅센터를 집중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했으며, 1,468개의 센터(2013년 기준, 그중 34%에 해당하는 504개가 국가급)를 운영 중임.
 - 이 밖에도 창업 단계별·요소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대학과학기술단지(94개소), 엑셀레이팅센터(6개), 국가급 생산

6) 칭화대학 중국창업연구센터(清华大学 中国创业研究中心) 모우루이(牟睿) 교수 인터뷰(2015. 4. 23).

7) Siri Roland Xavier *et al.*(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Global report"; Slavica Singer *et al.*(2015),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4 Global report".

8) 『第一财经日报』(2015. 5. 19), 「人类历史上最大创业潮(之三)」.

9) 『中国经济网』(2015. 1. 26), 「400亿引导基金带动1800亿民资投入 发展中国特色创业投资」.

10) 정책의 주요 내용은 ① 대중 창업공간 확대 ② 창업 진입문턱 낮추기 ③ 과학기술인력과 대학생의 창업 장려 ④ 혁신창업에 대한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 ⑤ 자금조성을 통해 창업 지원 ⑥ 창업투자(엔젤, VC 등) 자금조달 시스템 개선 ⑦ 창업 행사 활성화 ⑧ 창업 문화 조성임. 『中国政府网』(2015. 3. 11), 「国务院办公厅关于发展众创空间推进大众创新创业的指导意见」.



성촉진센터(251개), 기술이전기구(274개) 외에 기술금융서비스 및 국제 창업협력서비스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과학기술창업 인큐베이팅센터 내 인큐베이팅 중인 기업은 약 7만 8,000곳(2013년 기준)으로 총 3,309억 위안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약 436억 위안(누계)의 창업투자를 받았음.
- o 인큐베이팅센터를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은 2013년까지 총 5만 2,000개에 달하며, 이 중 200여 개 기업은 증시에 상장하였음.

표 2. 중국 기술창업 인큐베이팅센터 현황(2013년)

인큐베이팅센터(개)		운영 면적(만 m ²)	입주기업 수(개)		창업자 수(명)		졸업기업(누계, 개)
전체	1,468	5,400	전체	78,000	전체	1,583,000	52,000
국가급	504		유학생 기업	9,482	유학생	20,490	

자료: 科学技术部火炬高技术产业开发中心(2015), 「2013国家火炬计划年度报告」.

나. 투자 현황

- 중국의 창업투자는 엔젤(개인)투자, 전문 창업투자 기업(VC, PE),¹¹⁾ 정부출자펀드 등으로 구성되며, 2014년 약 8,000여 개의 창업투자 기구가 4조 위안 규모의 자금을 운용 중임.¹²⁾
- 중국의 창업투자는 1990년대 초반 외국인투자사와의 합작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창업투자 관련 법 개정과 중소기업 혹은 스타트업의 상장을 돕고자 개설된 중소기업판(中小板) 및 하이테크 기업 전용 장외거래 시장인 창업판(创业板)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였음.¹³⁾
- o 중국의 대표 창업투자 기관은 IDG, Sequoia Capital, 선전시 혁신투자그룹(深圳市创新投资集团), DCM, 싸이푸 투자기금(赛富投资基金), 진사장 창업투자(金沙江创业投资), 권론헌자본(北京君联资本) 등이 있음.
- 정부출자펀드는 주로 지방정부가 정부재정 혹은 국가개발은행과 함께 기금을 조성한 뒤 이를 다시 산하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임(표 3 참고).
- 선전시가 가장 큰 규모의 창업투자기금(60억 위안)을 운용 중이며, 그 밖에 베이징시는 중관촌(中关村) 관리위원회와 하이톈(海淀)구 정부가 각각 출자하여 조성한 창업투자촉진기금을 주로 스타트업이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음.

표 3. 정부출연기금 운용 모델 및 발전방식

운용 기구	대표기업	규모	발전방식
정부 주도로 창업투자기업 설립	상하이 창업투자(上海创业投资有限公司)	30억 위안	기금관리기업의 전문 관리
	선전시 혁신투자그룹	60억 위안	4개 중외합자기금과 협력, 쑤저우, 우한

11) 벤처캐피탈(VC)은 통상 주식투자 형식으로 투자하며, 프라이빗에쿼티(PE)는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한 뒤 신규 창업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지만 리스크도 큰 스타트업 등에 대해 투자하는 사모투자펀드를 의미함.

12) Zero2IPO(2015. 2), 「中国股权投资市场 2014年全年回顾」.

13) 자본시장연구원(2013), 「변화하고 있는 중국 벤처캐피탈 시장」,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3년 봄호; 중국 내 중국정부는 기존 주식시장의 까다로운 상장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자금조달 기회를 주기 위해 중소기업판(中小板, 2004년), 창업판(创业板, 2009년), 신삼판(新三板, 2013년)을 차례로 개설하였음. 거래시장마다 주식 발행 수 및 매출액 기준 등 상장조건이 각각 다르고 이 중 중소기업판의 상장조건이 가장 엄격하며, 신삼판은 등록제로 상장요건이 비교적 수월하나 리스크가 높은 스타트업의 비중이 높음.

표 3. 계속

	(深圳市创新投资集团)		충칭 등과 공동으로 창업투자기금 조성
지방재정 출자를 통한 창업투자촉진기금 설립	중관춘 창업투자촉진기금 (中关村创业投资引导基金)	5억 위안	시드(seed)머니 위주 투자 방식, 7개 투자기업 설립 운용
	베이징 하이덴구 창업투자촉진기금 (北京市海淀区创业投资引导基金)	5억 위안	지분투자 방식, 중관춘 하이테크 기업에 투자
지방정부와 국가개발은행이 공동으로 창업투자촉진기금 설립	쑤저우 공업원구 창업투자촉진기금 (苏州工业园区创业投资引导基金)	10억 위안	성장형 하이테크 기업에 투자
	톈진 빈하이신구 창업투자촉진기금 (天津滨海新区创业风险投资引导基金)	20억 위안	성장형 하이테크 기업에 투자

자료: 『中国产权网』(2011.12.6), 「股权托管机构参与政府创业投资引导基金运作路径研究」.

- 2014년 중국 창업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약 3.7배 증가한 146억 9,6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분야별로는 ICT 산업에 약 70%가 집중됨.
- 중국의 창업투자 규모는 201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건당 투자액도 2013년 906만 달러에서 2014년 1,828만 달러로 약 2배 성장하였음.
- 2014년 ICT 관련 투자는 101억 7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4년 알리바바의 뉴욕증시 상장 이후 중국 ICT 업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데 주로 기인함.
 - 중국 전체 창업투자에서 IC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4.5%에서 2014년 68.8%로 증가하면서 2014년 중국 전체 창업투자 확대에 ICT 산업이 크게 기여
- 2015년 1~5월 ICT 분야에 투자한 금액과 건수는 각각 51억 7,500만 달러, 175건으로 2014년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창업투자 증가세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로 이어져 창업 열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표 4. 중국 창업투자 추이(2010~14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창업투자	투자규모(백만 달러)	6,965	6,724	4,932	4,025	14,696
	투자건수(건)	418	465	338	444	804
ICT 산업 창업투자	투자규모(백만 달러)	1,706	2,734	1,801	1,669	10,107
	투자건수(건)	152	226	178	243	460
	전체 투자대비 비중(%)	24.5	40.7	36.5	41.5	68.8

주: ICT 산업은 Dow Jones상의 산업분류군 중 IT와 Consumer Information Service를 합한 값이며, 벤처캐피털(VC) 투자 기준임.

자료: Dow Jones Venture Source(검색일: 2015. 5. 20).

- ICT 분야의 세부 업종 가운데 인터넷 관련 투자가 두드러지며, 통신 · 부가 서비스,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도 활발함.
- 2014년 인터넷 업종의 투자규모와 건수는 각각 76억 8,000만 달러 및 648건에 달하며, 이는 각각 전체 ICT 투자의 38% 및 46%를 차지함.
 - 대표적인 투자 사례로 2014년 12월 밉스캐피털(明势资本) 등 4개 투자사가 자동차 수리서비스 관련 모바일 업체인 런런 아이처(人人爱车)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함.¹⁴⁾

- 인터넷 분야 외에 통신·부가 서비스와 정보기술의 투자건수가 각각 402건 및 239건으로 창업이 늘어나고 있음.
 - o 일례로 2014년 12월 인텔과 하이나아시아(海纳亚洲)가 화원데이터(华云数据)에 5,000만 달러를 투자함.¹⁵⁾

그림 1. 주요 ICT 업종별 창업투자 현황(2014년)



주: VC/PE 투자 기준임.

자료: Zero2IPO(2015), 「中国股权投资市场2014年全年回顾」.

- 창업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은 베이징으로 전체 투자의 40%(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상하이, 장쑤(江苏), 선전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베이징에서는 총 871건, 총 282억 6,600만 달러의 창업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각각 중국 전체 창업투자의 30.5%, 투자규모 기준으로는 40%에 해당하며, 2위인 상하이와의 격차도 매우 큰 편임.
 - o 베이징은 특히 ICT 분야 창업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중국 ICT 창업투자금액의 50% 이상을 차지
 - 선전의 창업투자 건수와 규모는 각각 220건, 27억 2,100만 달러이며, 단일 도시로는 베이징, 상하이 다음으로 투자 비중이 높음.

그림 2. 주요 지역별 창업투자 분포(2014년)



주: VC/PE 투자 기준임.

자료: Zero2IPO(2015), 「中国股权投资市场2014年全年回顾」.

- 중국은 2012년 이후 투자자본 회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며, 2014년은 투자회수 건수가 전년대비 81.2% 증가하였음.
 - 2011년까지 상승추세를 보이던 투자회수 건수는 2012년 30%가량 일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2014

14) 投资界 投资事件(<http://zdb.pedaily.cn/inv>, 검색일: 2015. 5. 20).

15) 投资界 投资事件(<http://zdb.pedaily.cn/inv>, 검색일: 2015. 5. 20).

년에는 830건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함.

- 2014년 투자자본 회수 중 IPO 및 M&A, 지분매각(股份转让)이 약 80%를 차지하며, 인터넷 기업의 IPO가 활발하였음.¹⁶⁾
 - o 2014년 인터넷 관련 13개 기업이 상장하였으며, 이들 기업의 총 공모액은 251억 7,500만 달러로 중국 전체 IPO 공모액의 40.4%를 차지함.
- 투자 건수에 비해 자본회수 건수가 크게 못 미치나, 중국은 IPO나 M&A 방식으로 회수되는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임.
 - o 2014년 투자건수는 2,860건에 달하나, 자본회수 건수는 830건으로 투자건수 대비 29%에 불과함.
 - o 중국은 IPO에 평균 3.9년, M&A까지 걸리는 시간이 3.5년으로 한국(13.8년), 미국(8.0년), 유럽(6.3년)에 비해서 짧아 자금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¹⁷⁾

표 5. 중국 창업투자 및 자본회수 추이(2009~14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투자 건수(건)	594	1,240	2,200	1,751	1,808	2,860
전년대비 증가율(%)	-22.0	108.8	77.4	-20.4	3.3	58.2
자본회수 건수(건)	203	555	606	423	458	830
전년대비 증가율(%)	27.7	173.4	9.2	-30.2	8.3	81.2

주: 1) 자본회수 건수는 투자기관을 기준으로 집계, 가령 1개의 스타트업에 N개의 창업투자기업이 투자한 뒤 자본을 회수했다면 N건으로 집계.
2) VC/PE 투자 기준임.

자료: Zero2IPO(2015), 「中国股权投资市场2014年全年回顾」.

- 2013년 신삼판(新三板)이 정식으로 개설되면서 ICT 분야 스타트업의 증시 상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4년 370여 건에 이어 2015년(5월 기준)에도 130여 개 기업이 상장하였음.¹⁸⁾
- 중국 국내외 증시에 상장·등록한¹⁹⁾ ICT 기업 가운데 신삼판에 등록된 기업이 약 290개 사로 전체 ICT 상장·등록 기업의 78%를 차지함.
 - o 2014년 중소기업판에 상장한 기업으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루창과기(路畅科技), 소프트웨어 기업 셴펑전자(先锋电子技术), 네트워크 장비 업체 마이푸통신(迈普通信), IT 서비스 업체 전스통(真视通) 등이 있음.
 - o 2014년 창업판에 상장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컴퓨터·인터넷 보안기업인 뤼멍과기(绿盟科技, 공모액 8.7억 위안), IT 서비스 기업 페이신(飞天诚信, 공모액 7.9억 위안) 등이 있음.
- 알리바바, 징둥(京东商城), 쥐메이(聚美优品) 등 높은 시장가치를 보유한 대다수 ICT 기업은 미국증시에 상장하였으며, 총 100여 개의 중국 ICT 기업이 상장되어 있음.²⁰⁾
 - o 2014년 중국 ICT 기업 중 알리바바와 징둥의 공모액은 각각 218억 달러와 17.8억 달러이며, 그중 알리바바는 중국 ICT 기업 IPO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하였음.

16) M&A는 VC/PE가 보유한 지분 또는 기업 전체 지분을 제3의 기업에 매각하는 것이며, 지분매각(股份转让)은 기존 투자자인 VC/PE가 새로운 투자자(VC/PE)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의미함(자료: Pwc(2015), 「中国TMT报告 2014年1季度 / 2季度」).

17) 『디지털타임즈』(2015. 3. 3), 「[알아봅시다] 벤처기업 회수시장 동향」.

18) 投资界 投资事件(<http://zdb.pedaily.cn/inv>, 검색일: 2015. 5. 20).

19) 각주 14번 참고.

20) 『新华网』, 「股事那点事儿」(<http://www.xinhuanet.com/finance/zhuanti/shichang/zt21.htm>, 검색일: 2015. 5. 16).

3. 지역별 ICT 창업환경 및 특징: 베이징, 선전, 상하이

가. 베이징

1) 창업 생태계 분석

- (현황) 베이징의 중관춘은 중국에서 벤처창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으로, 2014년 중국 전체 창업투자 건수와 투자규모 대비 모두 1/3을 차지하고 있음.²¹⁾
 - 중관춘은 1980년대 초 '중관춘 전자거리(中关村电子一条街)'로 조성되기 시작했고, 1988년 전국에서 최초로 국가급 하이테크산업단지(国家级高新技术产业开发区)로 비준을 받았으며, 같은 해 과학기술 산업화를 촉진하는 '화거계획(火炬计划)²²⁾ 사무국'이 설립되면서 인큐베이팅센터 설립, 기술금융서비스 도입 등 창업 기반이 조성됨.
 - 1993년에는 시나닷컴(sina.com)의 전신에 해당하는 쓰통리팡(四通利方)이 설립되고 대표적인 벤처캐피털 IDG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관춘에 기술창업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함.
 - 국무원은 1999년 중관춘을 과학원구(科技园区)로, 2009년에는 국가 자주혁신시범구(国家自主创新示范区)로 지정하면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창업의 중심지로 거듭남.
 - 정책적인 지원과 자금이 중관춘에 집중되면서 창업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2013년 중 중관춘의 432개 스타트업에 133.1억 위안의 창업 투자가 이루어졌음(전국의 1/3에 해당).²³⁾
 - 16개 단지로 구성된 중관춘은 핵심 혁신창업 지역인 하이톈(海淀)단지를 축으로 베이징 전역에 분포해 있으며, 북부지역의 R&D기지 및 하이테크 산업단지와 남부지역의 제조 및 신산업 단지로 형성되어 있음.²⁴⁾

표 6. 중관춘에서 창업한 주요 ICT 기업 현황

기업명	창업 시기	분야	비고
레노버(lenovo)	1984	노트북PC, 스마트기기 제조	중국과학원이 투자
쓰통리팡(四通利方, 현 sina.com)	1993	검색서비스 외	중관춘 최초 벤처투자 사례
ITC(현 sohu.com)	1998	검색서비스 외	인텔이 중국에 투자
징둥상청(jd.com)	1998	온라인 쇼핑몰 외	나스닥 상장
바이두(Baidu.com)	2000	검색서비스 외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나스닥 상장
샤오미(mi.com)	2010	소프트웨어, 스마트기기 제조 외	-

자료: 『新华网』(2015.3.26.), 『梦想, 从这里起飞——中关村创新驱动启示录』 등 각종 자료 정리.

- 중관춘에는 레노버·바이두·샤오미 등 중국의 대표적인 ICT 기업을 포함하여 하이테크 기업 2만 개가 소재하고 있고, 인근에는 우수 대학들과 더불어 대표적인 국책연구소가 집중되어 있으며, 2011년 인재 특구로 지정되면서 해외 우수인력 유입이 늘어남.

21) 창업투자는 엔젤투자(개인)와 기관투자(VC/PE)를 포함함.

22) 화거계획은 1998년에 실시된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화정책으로, 하이테크산업단지 설립, 첨단기술 창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함.

23) 中关村(2015), 『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商务指南 2014』.

24) 中关村(2015), 『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商务指南 2014』.

- 레노바바이두 등은 중관촌에서 창업한 대표적인 ICT 기업이며, 이 밖에도 차세대인터넷이동통신차세대이동통신위성바
이오환경 및 에너지절약 등 분야의 기업이 다수 소재함.
 - 중관촌은 향후 집적회로(IC), 신소재, 장비제조, 항공, 신에너지 및 신에너지자동차 등 산업을 육성·발전시킬 계획임.
- 중관촌에는 칭화대학, 베이징대학 등 40여 개의 고등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등 국책연구기관 206개,
국가급 실험실 112개, 국가공정연구센터 38개,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57개, 대학과학기술원 26개, 유학생 창업센터 34개가
소재함.²⁵⁾
 - 주변에서 고급인력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과 정부차원에서 과학성과의 산업화를 적극 장려하며 산학연 협력을 유도
하고 있어 기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 2011년 중국 조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를 포함한 15개 부처에서 '중관촌 인재특구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여,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중관촌으로 귀국한 해외 우수 두뇌가 1만 8,000명에, 창업한 기업 수는 6,000개에 달하며, 베이징시 정부는 '천인계획'과
'베이징 해외인재 유치 프로젝트'를 통해 각각 874명, 368명의 고급인력을 유치하였고, 그중 70~80%가 중관촌에서 근무
하고 있음.

■ 중관촌은 △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 젊은 창업자의 높은 비중 △ 다양한 지원기관 등으
로 인해 독특한 창업 생태계가 형성됨.

- 대표적으로 바이두, 샤오미는 중관촌에서 창업하여 급성장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기업은 IPO를 통해 대규모 자본을 유
치하는 데 성공함. 이러한 업체들은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자체 벤처캐피털을 통해 스
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음.
 - 중관촌 기업 중 254개 기업(이 중 중국(홍콩 포함) 156개, 외국계 98개)이 주식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인터넷 기업은 주로
해외증시에 상장하였음.
 - 샤오미 창업자 레이쥔(雷军)은 UC Web, 판커(凡客) 등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일부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있음.
 - 레노버와 중국과학원이 공동으로 '렌상즈싱(联想之星)'이라는 전문 창업지원기관을 설립함.
- 중국 30대 이하 창업자의 절반이 중관촌에서 활동할 정도로 젊은 창업자가 많은데,²⁶⁾ 이들은 과감한 혁신을 추구하고 실
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매우 적극적임.²⁷⁾
- 창업자 출신의 엔젤투자자, IDG, 인베스트투데이(今日投资), 베이징광창투(北极光创投) 등 전문 기관투자자 및 칭화대에서
운용하는 치디창투(启迪创投) 등에서 창업을 투자하고 있음.
- 또한 실질적으로 기술력은 갖췄지만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스타트업을 위해 중관촌 관리위원회에서 벤
처캐피털과 공동으로 13억 위안 규모의 엔젤투자기금을 조성 중임.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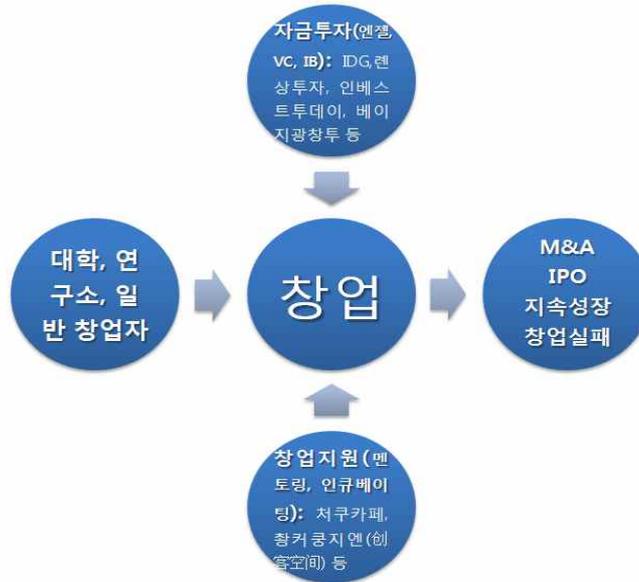
25) 中关村(2015), 「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商务指南 2014」.

26) 中关村管委会(2015. 3. 6), 「福布斯中国'30Under30'创客榜: 中关村占半」.

27) 『中国高新技术产业导报』(2013. 8. 5), 「六大要素构建中关村创业生态系统」.

28) 『新华网』(2015. 3. 26), 「梦想, 从这里起飞——中关村创新驱动启示录」.

그림 3. 중관촌 창업 생태계



자료: 저자 정리.

2) 주요 창업정책 및 지원 서비스

- (지원정책) 중관촌 관리위원회는 중앙정부, 베이징시 정부, 하이데구 정부와 공동으로 산업인재혁신창업국제화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정책을 시행 중임.²⁹⁾
 - 중관촌에서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100만 위안 규모의 장려금 지급과 개인소득세 면제 등의 파격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를 보조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사무공간 임대도 보조하고 있음.
 - 그 밖에 중관촌 소프트웨어원에는 기업 R&D센터, 혁신 플랫폼, 인큐베이팅, 멘토링 및 교육 플랫폼 등의 지원사업을 진행 중임.
 - 중관촌에서는 엔젤투자, 창업투자기금, 산업기금, 전략적 투자, IPO 등 융자나 투자기회가 다양함.³⁰⁾
 - 정부가 정책적 창업촉진기금을 집중하고 있고, 은행도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 국내외 벤처캐피털 기업들이 입주하여 다양한 창업 지원자금이 유입되고 있음.
 - 중관촌은 국제화를 위해 중관촌 소프트웨어원 국제협력 및 기술이전 플랫폼(中关村软件园国际合作与技术转移的新平台) 등 국제협력 플랫폼도 구축함.

표 7. 중관촌에서 시행 중인 주요 기업지원정책

정책명	주요 내용
우수인력 확보(高端领军人才聚集工程)	혁신 인재로 인정받을 경우 100만 위안의 장려금 지급 및 전년도 개인소득세 면제

29) 江川(2015), 「中关村软件园: 打造创业生态系统让创业者“栖息”」, 『中关村』. p. 69. (2015年03期)

30) 위의 글, p. 70.

표 7. 계속

창업투자보조 (《中外国家创新示范区创业投资创业资金管理方法》)	인증된 창업투자기구 및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팅센터는 중관춘 스타트업 실제 투자금액의 10%를 보조
중소기업 자금지원 (《中外国家创新示范区中小企业创新创业支持资金管理方法》)	- 혁신창의 분야 35~200만 위안 무상 지원 - 유학생 스타트업 지원자금: 10만 위안 무상 지원 - 유학생 창업 서비스기구 지원자금: 사용하는 면적 1m ² 당 0.5위안을 최대 3년간 보조
중소기업 창업투자 촉진기금 (《支持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中小科技型创业企业投资承接大建设工程项目的若干措施》)	담보회사가 기업이 시행하는 주요 건설공정에 대한 담보 유동성을 확보, 담보비용 우대, 중관춘 관리위원회가 기업이 대출한 이자의 40% 지원 등
하이테크 인증기업 세수 우대 (《高新技术企业认定的税收优惠政策》)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가 인정하는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 15%의 세율로 소득세 징수
스마트 하드웨어산업 혁신 발전에 대한 지원정책 (《中外国家创新示范区智能硬件产业创新发展若干支持政策》)	- 하드웨어 생태계 구성을 위해 5,000만 위안 규모의 기금 조성 - 하드웨어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선도기업 육성, 하드웨어 영역의 교류협력 지원 추진

자료: 华泰证券(2014. 12. 3), 「科技创新之风, 看中关村试点之推广」; 搜狐(2015. 3. 13), 「中关村扶持智能硬件企业 最高支持5000万」 등을 바탕으로 정리.

■ 중관춘 혁신거리(innoway)에 처쿠카페(车库咖啡), 3W카페, 36커(氩)를 비롯해 20개의 창업지원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음.³¹⁾

- 중관춘 관리위원회는 청년창업과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이텐구에 200m 길이의 혁신거리를 조성하여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유사한 형태로 초기 인큐베이팅, 투자 플랫폼, 개방형 창업공간, 창업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표 8 참고).
- 2011년 설립된 처쿠카페, 3W카페는 개방형 창업 플랫폼으로 중관춘 혁신 창업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음.
 - o 이곳에서는 음료비용 지불만으로 인터넷, 프린터기 등 각종 시설을 무료로 이용 가능함.

표 8. 중관춘 혁신거리에 소재한 주요 창업지원 서비스 플랫폼 현황(2015년 5월 기준)

초기 인큐베이팅	투자 플랫폼	개방형 창업 플랫폼	창업 미디어	창업 온라인 커뮤니티
혁신공장(创新工场), 창칭 텡창업원(常青藤创业园), 완지지(云基地), 칭화경제 관리 창업자 액셀레이터(清华经管创业者加速器), 렐상즈싱(联想之星) 등	텐스후이(天使汇), 베이징권렌투자(北京君联资本管理有限公司) 등	처쿠카페(车库咖啡), 3W카페(3W咖啡), Binggo Cafe 등	36커(36氩), 창업가(创业家), 라거우(拉勾)	창토우첸(创投圈)
				

자료: 阿里云(2014. 11. 29), 「中关村创业报告: 活跃度超过十年前互联网热潮」, 中关村创业大街(<http://www.z-innoway.com>) 등을 바탕으로 정리.

- 이러한 공간에 다양한 창업자가 몰리면서 새로운 창업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카페 일부 공간에서는 기업 IR과 제품홍보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투자자들을 끌어들이.
- 약 400개의 팀(이 중 해외파 출신 창업팀 60개)이 이곳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중 200개의 창업 프로젝트에 투자가 이뤄짐.³²⁾

31) 『新华网』(2015. 3. 25), 「中关村转型, 成互联网创业新阵地」.

나. 선전

1) 창업 생태계 분석

- 선전시는 1980년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시장개방을 추진한 지역의 하나로 전자 제조업과 가공무역이 발달하였으며, 중국의 대표 ICT 기업인 화웨이와 ZTE, 텐센트가 소재해 있음.
- 1979년 중국 최초의 특구로 지정된 선전시는 중앙정부의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외자 유입과 민간기업 발전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이며,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를 활용한 전자제품 제조, 가공무역 관련 기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 1980년대 설립된 화웨이, ZTE는 설립 초기 통신기기 제조와 수출을 위주로 하였으나,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중국의 대표 글로벌 ICT 기업으로 성장함.
 - 이 밖에도 2015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한 ‘국제가전쇼(CES) 2015’에 참여한 전체 기업 중 30%가 중국기업이고, 이 중 41%(421개)가 선전에 소재하며,³³⁾ 무인 항공기 드론(drone)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DJI도 선전에서 창업하는 등 ICT 제조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기업들이 다수 소재함.³⁴⁾

표 9. 선전에서 창업한 주요 ICT 기업 현황

기업명	창업 시기	주요 분야	비고
ZTE	1985	통신 네트워크 장비, 모바일 기기	시안 항공연구소(西安航空学院) 출신 엔지니어 6인이 공동 창업
화웨이(Huawei)	1987	통신 네트워크 장비, 모바일 기기	2014년 매출액 465억 달러, R&D 투자액 66억 달러
텐센트(Tencent)	1999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온라인 게임	중국 최대 SNS 위챗(wechat) 운영
DJI(大疆创新)	2006	소형 무인항공기	악셀 파트너스*에서 7,500만 달러 투자

주: *악셀 파트너스(Accel Partners)는 미국의 페이스북과 드롭박스(Dropbox)가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벤처캐피털임.

자료: 工业和信息化部(2014. 7. 14), 「2014年(第二十八屆)中国电子信息百强企业发布」; FORBES ASIA(2012. 11. 29), "Crossed Lines: ZTE Gets Tangled In U.S.-China Telecom-Gear 'Cold War'"; FT(2015. 5. 6), "Accel Partners invests \$75m in China drone maker DJI"

- 선전시는 1990년 이후 다국적 ICT 제조기업의 이전과 더불어 로컬 ICT 기업의 성장, 독특한 산자이(山寨) 문화로 인해 다른 지역과 달리 강력한 하드웨어 제조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가장 주목하는 지역임.³⁵⁾
- ICT 분야는 제조분야를 중심으로 초기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이후 대만과 중국으로 산업 이전되어, 이를 통한 국제 분업체계(global production network)가 형성됨.³⁶⁾
- 특히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 등 요소비용 우위가 있어 저부가가치 제조공정은 선전 중심의 주장삼각주와 상하이 중심의 장강삼각주 등 개방거점 지역으로 대거 이전되었음.
- 또한 선전에서 화웨이와 ZTE 등 다수의 로컬 ICT 기업이 성장하면서 제조생태계가 형성되었으며, 2013년 전 세계 생산

32) 『新华网』(2015. 3. 25), 「中关村转型, 成互联网创业新阵地」.

33) 『beSUCCESS』(2015. 2. 2), 「CES 2015, 중국 심천 출신 기업만 한국의 ‘4배」」.

34) 腾讯科技(2015. 4. 17), 「大疆创新成美商用无人机市场龙头 份额已达47%」.

35) 『The Guardian』(2014. 6. 13), "Inside Shenzhen: China's Silicon Valley".

36) 오종혁, 박현정(2014), 『중국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庆)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1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량의 40%에 해당하는 약 2억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등 모바일 기기 제조기반이 우수한 편임.³⁷⁾

- 한편 기존 브랜드 제품제조를 통해 기술이 축적되면서 2000년대 초 이를 모방한 산자이 폰이 등장하였고, 이후 기존 브랜드 제품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선전은 우수한 제조 기반과 기술자에 힘입어 시제품(Prototype) 제작이 쉬워 하드웨어 분야의 스타트업이 주목하는 지역임.
 - 선전에는 800여 개가 넘는 다국적기업의 대규모 공장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공장형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스타트업이 원하는 부품을 빠르고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으며, 소규모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춤.
 - 한국 스타트업 BBB에 따르면, 선전은 하드웨어 전문가가 아니어도 가격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³⁸⁾ 아이템 및 분야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에서 제품을 제작하는 것과 비교해 시간 면에서 10~20%, 비용 면에서 50% 수준에서 가능³⁹⁾

■ 선전시의 전자제품 전문시장인 화창베이(华强北)는 개방형 제품 제조 네트워크 및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다양한 창업이 이루어지는 추세임.

- 화창베이는 영업면적 46만 m² 규모의 초대형 전자제품 전문시장으로, 다수의 판매 대리점은 자체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조 공장들간에도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
 - 1980년대 광둥성 및 선전시 정부는 선전 및 주변지역 170여 개 제조사 및 판매사를 결집하여 선전전자그룹(深圳电子集团)을 설립하였고, 현재 화창베이 지역에 원부자재 소싱 및 제품 공급을 위한 시장을 조성함.
 - 2014년 말 현재 화창베이에 3만여 개의 제품 판매점이 영업 중이며, 연간 판매액은 3,000억 위안, 일일 유동인구는 50만 명에 달함.⁴⁰⁾
-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최신 전자제품과 부품이 화창베이에서 유통될 뿐 아니라 화창베이 자체가 전자제품 제조사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데, 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다 자본을 모아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이후 브랜드 제조사로 발전한 무수한 사례들이 회자되고 있음.⁴¹⁾
 - 일례로 중국 유명 로컬 노트북 제조사 Hasee는 화창베이에서 1평 남짓의 판매점으로 출발하여 제조사로 발전하였고, 이외 통저우전자(同洲电子), 진정(金正), 흥은소프트웨어(洪恩软件) 등 다수의 선전 ICT 기업이 화창베이에서 탄생함.

2) 주요 창업정책 및 지원 서비스

■ 선전시 정부는 기술창업을 장려하고자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과의 협력 운영 또는 기업 위탁 형태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난산구 지역에 관련 지원정책이 집중

- 선전시 정부가 1989년 과학기술 창업 서비스센터를 설립한 이래 시정부 차원에서 지원 혹은 인증한 인큐베이팅센터가 78개에 달하며, 2014년 기준 4,000여 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음.⁴²⁾
- 2014년 말 현재 선전시는 과학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연구기관 48개를 운영 중이며, 이 중 광치연구원(深圳光启高等理工研究院)과 선전 칭화대학연구원(深圳清华大学研究院), 선전 선진기술연구원(中国科学院深圳先进技术研究院)이 대표적임.⁴³⁾

37) 『南方日报』(2014. 3. 31), 「深圳智能手机去年出货量超2亿部」.

38) 『Platum』(2015. 3. 9), 「[Startup's Story #180]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성공한 글로벌 스타트업이 되겠다!」.

39) KOTRA globalwindow(2015. 5. 4), 「하드웨어 창업, 중국 선전을 주목하라」.

40)深圳市福田区委区政府(2015), 『解码深圳华强北』.

41)深圳市福田区委区政府(2015), 『解码深圳华强北』.

42) 『南方都市报』(2015. 2. 28), 「深圳科技创新三大主体力量」.

- 선전 칭화대학연구원은 1996년 선전시 정부와 칭화대가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하여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엔젤투자, 기술금융, 인큐베이팅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러시아 등 해외에도 유사한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음.⁴⁴⁾
- 선전시 정부는 난산구의 선전 첨단기술산업단지 내에 인큐베이팅 연맹을 결성하여 중국 국내외 50여 개의 유명 대학(선전시 분교), 유학생 협회, 공공 연구기관 및 ICT 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함.
- 난산구에는 2014년 말 현재 국가급 첨단기술기업만 1,463개에 달하는데 이는 선전시 전체의 30%에 해당하며,⁴⁵⁾ ZTE(통신장비), 텐센트(게임, SNS 등), 옌샹(研祥, 특수컴퓨터), 진디에(金蝶, 소프트웨어), DJI(大疆创新, 소형 무인항공기) 등 선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ICT 기업의 상당수가 난산구에 소재함.

표 10. 선전시 난산구 창업 지원기관

기관명	주요 내용
선전 칭화대학연구원 (深圳清华大学研究院)	- 소프트웨어, IT, 신소재 등 분야의 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 선전칭화연구벤처투자(深圳清华创业投资) 및 선전리허벤처투자(深圳力合创业投资) 등 운영
선전 선진기술연구원 (中国科学院深圳先进技术研究院)	- 기술개발연구와 기술이전 및 산업화 사업 추진(중국과학원 홍콩중문대, 선전시 정부의 공동 사업) - 로봇, 인공지능, 제어기술 관련 연구 및 관련 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첸하이 선전-홍콩 청년꿈공장 (前海深港青年梦工场)	- 첸하이관리국, 선전홍콩청년연합회, 홍콩청년협회에서 공동 설립 - 인큐베이팅(설립 2년 이하 기업)과 엑셀러레이팅(설립 5년 이하 기업) 사업 운영 - 법률, 재무, 용자, 마케팅 등 방면의 창업지원 서비스, 입주지원 및 세수혜택 제공
첸하이 호우더 인큐베이팅센터 (前海厚德创业孵化器)	- TMT, 스마트 기기 창업 관련 창업 초기 엔젤투자 및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자료: 科学网(2014. 11. 20), 「中科院深圳先进技术研究院机器人应用创新侧记」; 深圳市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管理局(2014. 11. 26), 「前海深港青年梦工场创业指引」; 经济通(2015. 4. 27), 「创业大时代 港青闯前海」.

- 이 밖에 선전시 정부는 난산구 첸하이에 선전-홍콩 청년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센터(前海深港青年梦工场)를 조성하였으며, 향후 DJI와 같은 선전·홍콩 청년창업 사례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함.⁴⁶⁾
- 동 센터는 5만 8,000㎡ 규모의 사무, 주거 및 교육, 전시 시설까지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되며, 특히 선전과 홍콩에 거주하는 45세 미만의 창업자를 위주로 지원함(임대료 및 입주비용,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15%로 적용).
- 중국·홍콩 엔젤투자자 및 창업지원 전문가가 운영하는 인큐베이팅센터(前海厚德创业孵化器) 외에도 중국과학원, 차이나텔레콤, DJI 등이 창업 인큐베이팅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DJI(大疆创新) 설립자 왕타오(汪滔)는 홍콩과기대(HKUST)에서 헬리콥터 제어기술을 연구하다 교내 창업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여러 개의 회전날개를 사용하는 멀티콥터를 제작하는 등 기술개발을 지속함.

■ 선전시 정부는 중국 국내외에 ‘제조 도시(City of Makers)’ 로 선전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선전시의 ICT 하드웨어 산업 육성과 창업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⁴⁷⁾

- 2014년 12월 선전시 정부는 차세대 ICT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로봇 및 웨어러블 장비, 스마트 기기 관련 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였으며,⁴⁸⁾ 이를 위해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 조성 및 공간 확보와 더불어 협회 및 연맹(创客基金, 众创工

43) 『南方都市报』(2015. 2. 28), 「深圳科技创新三大主体力量」.
 44) 深圳清华大学研究院 홈페이지(<http://www.tsinghua-sz.org/>, 검색일: 2015. 5. 11).
 45) 深圳市南山区人民政府(2015. 3. 2), 「南山区“创新南山”成全省科技创新大会焦点」.
 46) 『深圳商报』(2015. 4. 18), 「四大孵化器 齐聚梦工场」; SCMP(2014. 12. 8), "Shenzhen's Qianhai hub opens massive facility to help out budding entrepreneurs".
 47) OFweek 机器人网(2015. 3. 12), 「深圳将打造国际创客中心 机器人创业者的福音到了?」.

场, 创客协会, 创客联盟)을 구성할 계획임.⁴⁹⁾

- 또한 하드웨어 창업의 메카 '선전'을 해외에 알리기 위하여 2015년 1월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City of Makers", "Make with Shenzhen"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실시함.
- 2014년 선전 선진기술연구원(深圳先进技术研究院)과 중국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위원회, 선전시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중국과학기술개발원(中国科技开发院)은 각각 독일, 프랑스와 하드웨어 창업 및 사물인터넷·스마트 기기 분야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선전 선진기술연구원(深圳先进技术研究院)과 독일의 국제경영대학(SIBE)은 공동으로 '선전 슈타인바이스 기술이전 및 교육회사(深圳中科史太白技术转移与教育有限公司)'와 '중국과학원·슈타인바이스 국제 창커대학(中科史太白国际创客学院)'을 설립할 예정임.
 - 중국과학기술개발원, 선전시 사물인터넷·스마트기술 응용협회(深圳市物联网智能技术应用协会), 선전시 투자유치산업발전회사(深圳市招商产业发展有限公司)와 프랑스의 유럽과학기술단지(欧洲科技园) 및 북부지역 투자촉진국(法国北部大区投资促进局)은 중국·프랑스 인큐베이팅센터를 공동 설립하기로 합의함.

■ 그 밖에도 시드스튜디오(Seed studio), 핵스(HAX)⁵⁰⁾ 등 하드웨어 창업 관련 인큐베이팅(incubating) · 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으며, 자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음.⁵¹⁾

- 시드스튜디오는 전 세계 약 200개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서비스⁵²⁾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하드웨어(open-source hardware) 제조기업으로 2008년 선전에 지사를 설립하였음.
 - 시드스튜디오는 시제품 제작서비스뿐 아니라 매년 수만 명이 방문하는 메이커 네트워킹 이벤트인 '메이커 페어 선전(Maker Faire Shenzhen)'을 주최하고 있으며, 메이커를 위한 공동 작업공간(柴火创客空间)을 운영하고 있음.
- 핵스는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하드웨어 전문 인큐베이팅 기업으로, 미국 하드웨어 개발자들이 실제 제품 생산에 드는 비용과 시간으로 인해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보고 선전에 직접 진출하여 하드웨어 제작 공간 및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2~14년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발한 65개의 창업팀이 핵스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졸업률은 97.5%(2014년 8월 기준)에 이르며, 졸업한 기업의 75%가 외부 투자를 받음.⁵³⁾
- PCH International의 설립자인 Liam Caseys는 광둥성에서의 비즈니스 경험을 살려 부품 생산업체와의 연결, 패키징, 물류서비스 등 제품 출시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전 외에 샌프란시스코, 홍콩, 서울, 도쿄 등 주요 도시에 법인을 두고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임.

48) 각각 「深圳市机器人、可穿戴设备和智能装备产业发展规划（2014-2020年）」, 「深圳市机器人、可穿戴设备和智能装备产业发展政策」임.

49) 『科技日报』(2015. 4. 13), 「众创工场亮相深圳创客发展将获政策支持」; 『深圳特区报』(2015. 3. 16), 「政府扶持创业者“送一程”搭建平台让创客天天路演」.

50) 최근 회사 명칭을 핵셀레이터(HAXLR8R)에서 핵스(HAX)로 변경하고 기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시제품 제작과 펀딩 단계 이후, 유통과 마케팅·판매 지원프로그램으로까지 확장함. TechCrunch(2015. 5. 11), "Haxlr8r Rebrands As Hax, Announces New Accelerator Program And Matching Funds For Graduates".

51) 『The Economist』(2014. 1. 18), "Hardware startups: Hacking Shenzhen".

52) 시제품 제작 서비스는 시제품 제작 의뢰를 받아 제작이 가능한 생산기업과 매칭시키고, 시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중개자로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53) Cyril Ebersweiler(2014. 8. 18), "Hax Made with Shenzhen".

다. 상하이

1) 창업 생태계 분석

- 상하이는 베이징과 더불어 고급인력이 집중된 도시로, 2000년대 초반 해외파 고급 엔지니어와 관리자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ICT 분야의 창업이 증가하기 시작함.⁵⁴⁾
 - 상하이는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 외국인과 다국적기업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도시이며, 은행 및 증권 등 금융산업이 발전하여 많은 자금이 집중되고 있음.
 - 중국으로 귀국한 해외파 고급인력 중 1/4이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해외에서 익힌 선진 기술과 기법을 바탕으로 장장첨단기술단지(张江高科技园区) 등에서 창업을 시도⁵⁵⁾
 - 이 시기에 창업한 기업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로 유명한 SMIC(中芯国际)와 산다게임즈,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Ctrip 등이 있음.

표 11. 상하이에 창업한 주요 ICT 기업 현황

기업명	창업 시기	분야	비고
산다(盛大游戏)	1999	게임	-
Ctrip(携程)	1999	여행 서비스	2003년 나스닥 시장에 상장
SMIC(中芯国际)	2000	반도체	파운드리 위주
다중뎬핑(大众点评)	2003	외식 관련 O2O 서비스	구글에서 벤처투자
PPLive Inc.	2005	온라인 스트리밍	-
37Games(上海三七玩网络科技)	2011	게임(37.com)	-

자료: 中国互联网协会·工业和信息化部信息中心(2014), 「2014年中国互联网企业100强」; 『中国电子报』(2015. 4. 28), 「上海: “芯”星云集 孕育突破」; Dow Jones Venture Source(검색일: 2015. 5. 20); 바이두(baidu.com, 검색일: 2015. 5. 22).

- 상하이에서 기술 창업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단지는 장장첨단기술단지이며, 그 밖의 창업지원기관으로 멩상텐디(梦想天地), STEP, 텐센트 창의산업원 등이 있음.⁵⁶⁾
 - 장장첨단기술단지는 1992년 설립된 국가급 하이테크 산업단지이며, 2002년 장장개발(张江高科技园区开发公司)과 공동으로 창업 생태계 구축에 나섬.
 - 주요 육성 분야는 IT, 바이오, 문화산업 등이며, IT의 경우 SMIC의 진출로 인해 집적회로(IC) 분야가 발달해 있으며, 창업 초기자금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편인 데다 정책관리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이 없어 다소 비효율적으로 운영
 - 푸단대와 연계하여 창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멩상텐디(梦想天地), 상하이 내 대학교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창업기금회(创业基金会)에서 운영하는 STEP은 대학생 창업에 특화
 - 그 밖에 텐센트는 2014년 하반기 상하이에 창업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약 20여 개사가 입주해 있음.

54) 장장첨단기술단지 관계자 인터뷰(2015. 4. 22).

55) 장장첨단기술단지 관계자 인터뷰(2015. 4. 22).

56) 张继宏(2014), “张江高科技园区孵化器模式”解析, 『Pudong Development』. 2014/12 pp. 34~36.

- 텐센트 창업센터는 인큐베이팅과 투자가 결합된 모델로 운영되며, 향후 유사한 창업센터를 전국에 20개가량 설립할 예정이다.⁵⁷⁾

표 12. 상하이 주요 창업단지 및 인큐베이팅센터

주요 창업단지(인큐베이팅센터)	소재지	내용
장강첨단기술단지(张江高科技园区)	푸둥신구	국유기업에서 운영하는 창업단지로, 기존에 반도체, 바이오 의약 부문의 창업 지원이 많았으나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관련 창업 지원 확대
몽상텐디(梦想天地)	양푸구	푸단대학 및 투자사가 연합하여 설립한 인큐베이팅센터
STEP(上海接力)	양푸구	상하이 대학생 과학기술창업관리위원회에서 설립(2005년)한 창업기금회(创业基金会) 산하의 창업지원서비스 회사로 창업단지, 창업기금 운영
Innospace(创智空间)	양푸구	민간운영 인큐베이팅 회사로 한국 창업진흥원과 협력 추진 계획
치넨창예잉(起点创业营)	민항구	민항구 정부, 소프트뱅크차이나(软银中国), 엔젤투자자 차리(查立)가 공동으로 설립한 인큐베이팅센터
텐센트 창업센터(腾讯创业基地)	쉬후이구	모바일, O2O,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분야의 스타트업 지원

자료: 『新华网』(2011. 4. 15), 「上海推出“梦想天地”企业孵化器 助推创业者圆梦」; 上海接力 회사소개서, 현지 기업 인터뷰(2015. 4. 22); 플래텀(2015. 4. 21), 「상해 텐센트 창업센터를 통해 본 중국의 창업열기」.

■ 상하이는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해 ICT 분야의 창업에 있어서도 게임과 같이 수익모델이 확실한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상하이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어⁵⁸⁾ 중국 게임산업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산다, 쥘멍(骏梦)을 포함한 온라인 게임기업이(74개) 많은 편임.⁵⁹⁾
- 또한 호텔 숙박, 티켓 판매 등을 대행하는 Ctrip이나 회원사의 광고를 수익원으로 하는 파종텐핑 등 수익모델이 어느 정도 구축된 분야를 위주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불투명한 검색서비스, 메신저, 쇼핑 등은 발달하지 못함.
 - 베이징(바이두, 시나닷컴, 소후닷컴 등), 항저우(알리바바), 선전(텐센트) 등에는 대형 플랫폼 업체가 있으나 상하이는 중국 전체에서 영향력 있는 플랫폼 업체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음.

2) 주요 창업정책 및 지원 서비스

■ 상하이시 정부는 2015년 5월 소프트환경 구축, 과학기술의 산업화, 혁신인재 유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과학혁신도시 발전 계획(全球科创中心方案)'을 발표하고, 혁신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세부적으로는 해외 기술이민제도 실시,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서비스 모델의 혁신, 지분 위탁관리 교역센터(股权托管交易中心) 개혁 등이 포함됨.
 - 상하이시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텐센트, 알리바바 등과 인터넷산업 협력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혜택이 강화될 계획이고, 장강첨단기술단지가 정책지원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음.⁶⁰⁾

57) 『新华网』(2014. 8. 5), 「腾讯创业基地正式落户上海 入驻越界创意园」.

58) 중국 현지 N사 관계자 인터뷰(2015. 4. 22).

59) 노수연 외(2014),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연구보고서 14-16, p. 17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0) 『上海证券报』(2015. 5. 19), 「上海科创中心建设方案将落地 本地高科技园区公司将受益」.

- 그 밖에도 혁신인재 유치를 위해서 과감하게 호적(户口)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 인력이 창업할 경우 검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⁶¹⁾
 - 기존에 석사급 이하 학력을 보유한 해외 인재의 경우 3년 이상 하이테크기업 근무 경력요건을 갖춰야 상하이 호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요건이 완화되었음.⁶²⁾

■ 상하이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팅협회(上海科技企业孵化协会)와 상하이 과학기술창업센터(上海科技创业中心)에서 각종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4년 상하이시 정부는 체계적인 창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의 사업단위로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팅협회와 과학기술창업센터를 지정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함.⁶³⁾
- 예비 창업자,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등 창업단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부적으로 사무공간 제공, 창업 컨설팅 및 교육, 기술 및 제품 테스트, 시제품의 상품화 및 마케팅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함.

■ 상하이의 대표 창업지지로 꼽히는 장장첨단기술단지(张江高科技园区)는 특색 있는 창업공간을 구축하고 3억 위안의 기금을 조성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임.⁶⁴⁾

- 장장첨단기술단지의 상하이 푸둥소프트웨어원(上海浦东软件园) 내 5만 m² 규모의 공간에 O2O(Online to Offline)⁶⁵⁾분야 스타트업에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 산업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 인터넷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함.
 - 또한 3억 위안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서 2억 위안은 기업에 대한 융자(지분투자)를 실시하고, O2O 기지에 5,000만 위안을 투입하며, 창업자를 대상으로 3,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할 방침임.

■ 상하이 소재 Innospace에서 인큐베이팅 중인 창업 준비팀의 1/3을 국제팀으로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창업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팀도 합류할 예정이다.⁶⁶⁾

- 중국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왕성한 창업 수요에 힘입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로컬 창업팀과 한국, 홍콩, 일본, 미국에서 온 해외 창업팀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창업팀의 경우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을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추진한 경우가 많아서 이를 다시 중국시장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

61) 『21世纪经济报道』(2015. 5. 22), 「上海科创中心人才政策“给力” 或放宽户籍限制」.

62) 박사학위 보유자나 동등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하이 호적을 자동적으로 부여받음. 호적 미취득 시 자녀교육, 행정수속, 주거 등에서 차별이 발생함.

63) 上海市科学技术委员会(2014. 9. 16), 「关于开展2014年科技创新创业服务体系建设的通知」.

64) 『新华网』(2015. 5. 18), 「上海：“浦软创业+”行动计划出台 为创新创业提供“优质土壤”」.

65)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시킨 서비스 영역으로 스마트폰의 등장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일례로 유사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가정집의 남은 방을 수요자에게 연결하는 에어비앤비를 들 수 있음(자료: 한경 경제용어 사전, 검색일: 2015. 5. 18).

66) 중국 현지 기업관계자 인터뷰(2015. 4. 22).

4. 평가 및 시사점

가. 평가 및 전망

- 최근 중국 내 창업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ICT 관련 제품·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ICT 창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으나, 아직까지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기보다는 기존의 제품 컨셉을 중국시장에 맞추어 변형시키는 추세임.
 -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개방형 창업공간(众创空间)이 생겨나고, 정부 및 투자기관 자금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창업에 집중되면서 창업 문턱이 낮아지고 있음.
 - 중국 전역에 1,500여 개의 과학기술창업 인큐베이팅센터 외에 누구나 큰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 형태의 개방형 창업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창업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그러나 청년 창업자들이 개발한 제품의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거나 혁신적이기보다는 이미 출시된 제품을 중국시장에 맞게 변형하는 사례가 많음.
 - 이는 지우링허우(90后)의 생활반경과 경험이 제한적이라 단순한 기술 모방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⁶⁷⁾ ICT 스타트업의 가치평가에 버블이 형성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음.⁶⁸⁾
- 인력과 자금, 정책이 집중된 베이징과 강력한 하드웨어 제조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선전이 중국 ICT 창업 붐을 주도하는 가운데, 상하이도 최근 창업 허브가 되기 위해 특색 있는 창업공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베이징 중관춘은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분야에 특화된 창업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제외하고는 중국에서 가장 창업 환경이 우수
 - 중관춘은 투자유치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해 13억 위안 규모의 초기 엔젤투자기금을 지원하고, 개방형 창업 플랫폼을 통해서도 인큐베이팅, 투자, 미디어 홍보 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선전은 다국적 IT 기업의 제조시설과 소규모 부품생산이 가능한 공장형 기업이 많아서 원하는 부품을 빠르게 조달할 수 있고, 시제품(prototype)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하드웨어 제조기반을 보유함.
 - 화창베이를 중심으로 시드스튜디오, 헥스 등 하드웨어 창업지원 서비스 기관에서는 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팅 외에 네트워킹이 부족한 스타트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베이징과 상하이에 비해서 고급 개발자 확보가 어려운 점이 한계로 지적⁶⁹⁾
 - 상하이는 과학혁신도시 발전 계획을 통해 혁신 창업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알리바바 등 주요 인터넷기업과의 협력과 더불어 장장첨단기술단지에 O2O 분야의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할 예정임.
 - 다만 초기자금 유치가 어렵고, 수익모델이 확실한 분야에만 창업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
- 중국에서 사상 최대의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ICT 기업의 성공사례를 이어가고자 하는 창업 열기는 향후 5~6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⁷⁰⁾

67) 한국금융연구원(2014. 9. 11), 「중국에도 청년 창업 열기가 확산」, 주간금융브리프 23-31.

68) 베이징 소재 C, D사 관계자 인터뷰(2015. 4. 23~24).

69) 『TechWeb』(2013. 12. 17), 「创业者说：深圳创业环境比北京糟糕多了」.

70) 『第一财经日报』(2015. 5. 13), 「人类历史上最大创业潮」.

- 중국은 1980년대 과학기술자, 교판기업(University Run Enterprises) 중심의 창업 붐, 1990년 말 해외에서 귀국한 유학생 중심의 창업 붐에 이어 ICT 분야의 기술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음.⁷¹⁾
-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중국 ICT 기업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고, 중국정부도 기술 창업, 대학생 창업 등에 대해 정책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2014년 말 현재 6억 4,900만 명, 모바일 사용자도 5억 6,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여전히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관련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 모델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중국에는 대기업이 장악할 수 없는 다양한 틈새시장이 존재하여 창업 관심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⁷²⁾

나. 시사점

- 베이징, 선전, 상하이 등 중국에서 ICT 창업인프라가 발달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이 실질적으로 협력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지 진출을 위한 창업시장 정보 제공 등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한·중 양국의 기업 및 창업기지와 벤처캐피털 간 협력을 통해 창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하여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
 - 예컨대 우리기업은 중국 하드웨어 인프라가 우수한 선전에 소재한 핵스 등 민간 인큐베이팅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과 유통 등 창업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핵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으며, 합류하는 팀에 대해 최대 10만 달러의 초기자금(상응하는 지분 매입)⁷³⁾과 크라우드 펀딩, 유통, 홍보 등을 지원
 - 실리콘밸리 기업도 선전 소재 핵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창업팀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바 있음.
 - 그 밖에 국내 스타트업의 중국자본 유치 및 중국 진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점검(예: 창업 지분, 수익 배분, 지적권·특허권, 기술 개발 및 이전, 고용 계약, 투자금 회수조건 등), 정부인증 체계, 현지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전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중국 ICT 분야 스타트업에 대해 자본이 집중되고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어 관련 스타트업의 진출이 유망하나, 시장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다른 통신환경과 사용자 습관 등에 대한 기초 시장조사가 필요함.
 - 중국의 인터넷 속도는 3.4Mbps로 전 세계 평균(4.5Mbps)보다 느리고, 지역별로도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에는 유무선 인프라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으나 지방으로 갈수록 통신환경이 좋지 않은 편임.
 - 또한 무선 데이터망 이용보다는 무료 와이파이(wifi) 접속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현지 시장에 맞게 프로그램 용량 혹은 코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품력과 기술력이 있어도 사용자에게 호응을 얻기 어려우며, 초기부터 중국시장에 특화된 제

71) 위의 글.

72) 현지 D사 관계자 인터뷰(2015. 4. 23).

73) HAX 기업 홈페이지(<http://www.hax.co/program/accelerator>, 검색일: 2015. 5. 15)

품 및 서비스 개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례로 S사는 2013년 중국 현지 T사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16개의 앱마켓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한국과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이 달라 성과가 미미하였으며,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버전으로 재진출을 모색 중임.⁷⁴⁾
 - 한편 모바일 앱마켓도 구글이나 애플 중심이 아닌 현지 기업이 운영하는 서드(3rd)마켓을 활용해야 하므로 진출 시 이를 면밀하게 고려해야 함.
-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ICT 분야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고, 자본회수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창업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지면서 지나치게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데 그치고 있어, IPO 중심의 자본회수를 위한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함.⁷⁵⁾
- 중국정부는 스타트업의 자본조달이 유리하도록 IPO 기준을 완화한 창업판, 신삼판 등을 개설하였고, 새로운 ICT 사업 영역에 대해 사전규제를 최소화하여 관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음.
 - 중국 민간기업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이고, M&A도 비교적 활발함.
 - 반면에 한국은 정부 주도의 창업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고, 주로 창업 초기단계(1~3년)에 지원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어 대부분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며,⁷⁶⁾ 상품화 이후의 마케팅·유통 등 사업화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 또한 한국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가 주로 IPO에 의존하고 있는데, 회수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13.8년)되는 단점이 있어서 창업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M&A, 장외시장 등을 통한 중간회수시장 활성화가 필요 **KISP**

74) S사 관계자 인터뷰(서울, 2015. 4. 8).

75) 중국 현지 K사, I사 관계자 인터뷰(2015. 4. 21).

76) S사 관계자 인터뷰(서울, 2015. 4. 8).

참고문헌

[국문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0.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 보도 별첨자료 (2월 4일)
- 노수연 외. 2014.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연구보고서 14-16, p. 17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디지털타임즈』 (2015. 3. 3), 「[알아봅시다] 벤처기업 회수시장 동향」.
- 오종혁, 박현정. 2014. 『중국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慶)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1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자본시장연구원. 2013. 「변화하고 있는 중국 벤처캐피탈 시장」,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3년 봄호.
- 한국금융연구원. 2014. 「중국에도 청년 창업 열기가 확산」, 주간금융브리프 23-31. (9월 11일)
- 『beSUCCESS』. 2015. 「CES 2015, 중국 심천 출신 기업만 한국의 '4배」. (2월 2일)
- KOTRA globalwindow. 2015. 「하드웨어 창업, 중국 선전을 주목하라」. (5월 4일)
- 『NEWSIS』. 2014. 「中, 선전에 혁신센터 건립...베이징·우한·상하이 이어 4번째」. (6월 5일)
- 『Platum』. 2015. 「[Startup's Story #180]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성공한 글로벌 스타트업이 되겠다」. (3월 9일)
- _____. 2015. 「상해 텐센트 창업센터를 통해 본 중국의 창업열기」. (4월 21일)

[중문자료]

- 江川. 2014. 「影响中国城市创新创业环境的N大因素」. 『中关村』. p. 78. (9月)
- _____. 2015. 「中关村软件园: 打造创业生态系统让创业者“栖息”」. 『中关村』. p. 69. (2015年 03期)
- 经济通. 2015. 「创业大时代 港青闯前海」. (4月 27日)
- 工业和信息化部. 2014. 「2014年 (第二十八届) 中国电子信息百强企业发布」. (7月 14日)
- 『科技日报』. 2015. 「众创工场亮相深圳创客发展将获政策支持」. (4月 13日)
- 科学技术部火炬高技术产业开发中心. 2015. 「2013国家火炬计划年度报告」.
- 科学网. 2014. 「中科院深圳先进技术研究院机器人应用创新侧记」. (11月 20日)
- 『南方都市报』. 2015. 「深圳科技创新三大主体力量」. (2月 28日)
- 『南方日报』. 2014. 「深圳智能手机去年出货量超2亿部」. (3月 31日)
- 『北京晚报』. 2015. 「北京中关村将建“大学生创业一条街”」. (3月 19日)
- 上海市科学技术委员会. 2014. 「关于开展2014年科技创新创业服务体系建设的通知」. (9月 16日)
- 『上海证券报』. 2015. 「上海科创中心建设方案将落地 本地高科技园区公司将受益」. (5月 19日)
- 搜狐. 2015. 「中关村扶持智能硬件企业 最高支持5000万」. (3月 13日)
- 新浪科技. 2015. 「阿里云发布“创客+”计划」. (3月 30日)
- 『新华网』. 2011. 「上海推出“梦想天地”企业孵化器 助推创业者圆梦」. (4月 15日)

- 『新华网』. 2014. 「2014中国大学生就业报告发布」. (6月 10日)
- _____. 2014. 「腾讯创业基地正式落户上海 入驻越界创意园」. (8月 5日)
- _____. 2015. 「梦想, 从这里起飞——中关村创新驱动启示录」. (3月 26日)
- _____. 2015. 「上海: “浦软创业+”行动计划出台 为创新创业提供“优质土壤”」. (5月 18日)
- _____. 2015. 「中关村转型 成互联网创业新阵地」. (3月 25日)
- 『深圳商报』. 2015. 「四大孵化器 齐聚梦工场」. (4月 18日)
- 深圳市南山区人民政府. 2015. 「南山区“创新南山”成全省科技创新大会焦点」. (3月 2日)
- 深圳市福田区委区政府. 2015. 「解码深圳华强北」.
- 深圳市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管理局. 2014. 「前海深港青年梦工场创业指引」. (11月 26日)
- 『深圳特区报』. 2015. 「政府扶持创业者“送一程” 搭建平台让创客天天路演」. (3月 16日)
- 阿里云. 2014. 「中关村创业报告: 活跃度超过十年前互联网热潮」. (11月 29日)
- 张继宏. 2014. 「“张江高科技园区孵化器模式”解析」. 『Pudong Development』. 2014/12. pp. 34~36.
- 财经网. 2014. 「程建国: 移动互联网给年轻人带来新一轮创业机会」. (10月 20日)
- 『第一财经日报』. 2015. 「人类历史上最大创业潮 (之三)」. (5月 19日)
- _____. 2015. 「人类历史上最大创业潮」. (5月 13日)
- 中关村. 2015. 「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商务指南 2014」.
- 中关村管委会. 2015. 「福布斯中国30Under30' 创客榜: 中关村占半」. (3月 6日)
- 中国经济网. 2015. 「400亿引导基金带动1800亿民资投入 发展中国特色创业投资」. (1月 16日)
- 『中国高新技术产业导报』. 2013. 「六大要素构建中关村创业生态系统」. (8月 5日)
- 『中国教育报』. 2014. 「互联网时代创业教育如何升级?」. (9月 25日)
- 中国产权网. 2011. 「股权托管机构参与政府创业投资引导基金运作路径研究」. (12月 6日)
- 中国新闻网. 2014. 「中国官方计划4年内引领80万大学生创业」. (5月 30日)
- 『中国电子报』. 2015. 「上海: “芯”星云集 孕育突破」. (4月 28日)
- 中国政府网. 2015. 「国务院办公厅关于发展众创空间推进大众创新创业的指导意见」. (3月 11日)
- 中国互联网协会·工业和信息化部信息中心. 2014. 「2014年中国互联网企业100强」.
- 腾讯科技. 2015. 「大疆创新成美商用无人机市场龙头 份额已达47%」. (4月 17日)
- 华泰证券. 2014. 「科技创新之风, 看中关村试点之推广」. (12月 3日)
- 『21世纪经济报道』. 2015. 「上海科创中心人才政策“给力” 或放宽户籍限制」. (5月 22日)
- OFweek 机器人网. 2015. 「深圳将打造国际创客中心 机器人创业者的福音到了?」. (3月 12日)
- Pwc. 2015. 「中国TMT报告 2014年1季度/2季度」.
- TechWeb. 2013. 「创业者说: 深圳创业环境比北京糟糕多了」. (12月 17日)
- Zero2IPO. 2015. 「中国股权投资市场2014年全年回顾」.

[영문자료]

- Cyril Ebersweiler. 2014. "*Hax Made with Shenzhen*". (Aug 18)
- FORBES ASIA. 2012. "*Crossed Lines: ZTE Gets Tangled In U.S.-China Telecom-Gear 'Cold War'*". (Nov 29)
- FT. 2015. "*Accel Partners invests \$75m in China drone maker DJI*". (May 6)
- SCMP. 2014. "*Shenzhen's Qianhai hub opens massive facility to help out budding entrepreneurs*". (Dec 8)
- Siri Roland Xavier et al. 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Global report*".
- Slavica Singer et al. 2015.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4 Global report*".
- TechCrunch. 2015. "*Haxlr8r Rebrands As Hax, Announces New Accelerator Program And Matching Funds For Graduates*". (May 11)
- The Economist. 2014. "*Hardware startups: Hacking Shenzhen*". (Jan 18)
- The Guardian. 2014. "*Inside Shenzhen: China's Silicon Valley*". (Jun 13)

[웹사이트]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산업과 주요 경제지표」. <http://spri.kr/post/4533>(검색일: 2015. 6. 26).
- 한경 경제용어 사전. <http://s.hankyung.com/dic/>(검색일: 2015. 5. 18).
- Dow Jones Venture Source(검색일: 2015. 5. 20).
- HAX. <http://www.hax.co/program/accelerator/>(검색일: 2015. 5. 15).
- 百度. baidu.com(검색일: 2015. 5. 22).
- 新华网. <http://www.xinhuanet.com/finance/zhuanti/shichang/zt21.htm>(검색일: 2015. 5. 16).
- 深圳清华大学研究院. <http://www.tsinghua-sz.org/>(검색일: 2015. 5. 11).
- 中关村创业大街. <http://www.z-innoway.com/>(검색일: 2015. 5. 13).
- 投资界 投资事件. <http://zdb.pedaily.cn/inv/>(검색일: 2015. 5. 20).